

한·미 FTA 협상과 뉴질랜드 암소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미 FTA 저지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뉴질랜드 대사관 앞에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비롯한 남호경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과 한우협회 도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과 뉴질랜드산 번식용 암소인 리무진의 국내 수입

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산 암소 수입은 허술한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을 조직적으로 활용, 이익을 챙기려는 수입업자들의 계략”이라며,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한우 개량사업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도 있다”면



서 “순수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생우수 입 반대 저지투쟁을 전 한우인과 함께 각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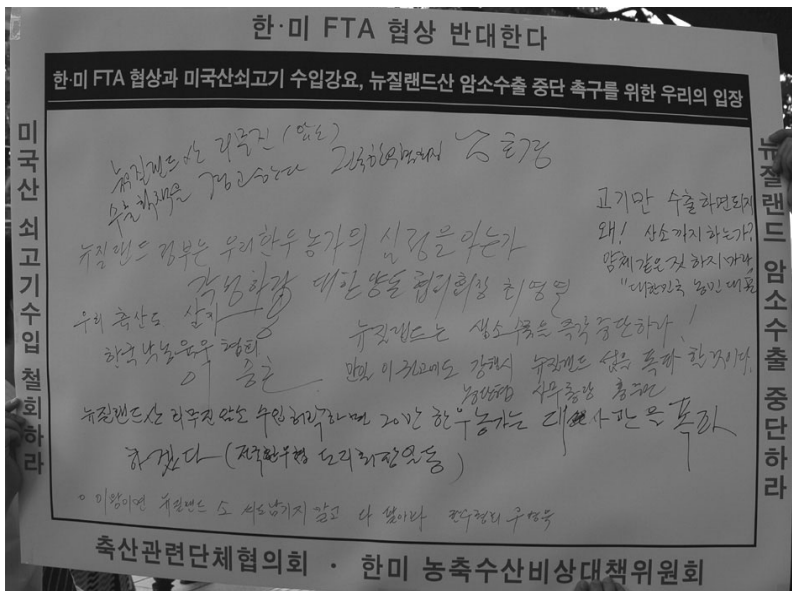
또한 남호경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 진행과 관련, 지난 200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미국 의회나 정부내 자체 감사기관에서도 광우병 검역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돼 왔음을 상기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광우병 위험에 내던지는 것과 같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미 FTA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이 낭독한 ‘뉴질랜드 암소 수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인해 국내 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의 암소 수출은 수십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한우개량사업의 근간 및 한우 혈통보전의 붕괴를 통해 한우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뉴질랜드의 암소 수출로 한우 유전자원의 붕괴를 유발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FTA협상과 이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강요와 뉴질랜드 암소 수출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한우산업 파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단체와 공동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남호경 회장을 비롯 최영열 양돈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문경식 의장은 뉴질랜드 대사관을 방문, 이 같은 내용

이 담긴 항의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했다.



축산관련 단체장들과 한우협회 도지회장들의 “한·미 FTA협상과 뉴질랜드 암소수출 중단 촉구”의 글